# “모래로는 밥 짓지 못해”



##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⑧ 수행의 근본

〈원문〉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고하셨다. “일체중생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옛적부터 가지가지로 뒤바뀐 업의 종자가 악차취(惡叉聚)와 같으니라. 수행하는 사람들도 위 없는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이나 연각이 되거나 외도나 하늘의 마왕(魔王)이나 마의 권속이 되는 것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여 바로 닦아 익히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미진수 같은 겁을 지나도 될 수가 없느니라.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아난아, 하나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지금 너와 중생들이 반연(攀緣)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심성을 삼는 것이요, 둘은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니 지금 너의 식정(識精)의 원래 밝은 것이 능히 모든 반연을 내었는데 그 반연으로 원래 밝은 것을 유실해 버렸느니라. 모든 중생이 이 본래 밝은 것을 잃어버린 탓으로 종일토록 수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윤회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강해〉

대승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수행의 최후 완성된 경지가 이승(二乘) 곧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의 경지가 아니라 한다. 〈능엄경〉에도 성문이나 연각은 보리도를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경지라 하여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중생들의 업종자가 악차취와 같아서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주지시키고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미진수 겁을 지나도 수행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악차취는 인도에 있는 식물 이름인데 떨기를 이루어 자라는 식물로 열매가 세 개씩 한꺼번에 떨어져 한 곳에서 같이 싹이 난다고 한다. 중생이 미혹으로 인하여 업을 짓고 그 결과 괴로움을 받는 혹(惑)·업(業)·고(苦)가 악순환하는 것을 악차취에 비유해 말한 것이다.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란 무명주지(無明住地)를 말하는 것으로 식심(識心)이 일어나는 미혹한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미(迷)를 자주 말하는데 중생이 미혹한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에서이다.

다시 말해 반연하는 마음을 참 마음으로 안다는 것이다. 반연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육식심(六識心)이다. 이는 모두 망상심이고 번뇌가 유발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미(迷)를 오(悟)로 전환하는 것이다. ‘식정(識精)의 원래 밝은 것(識精元明)’이란 식(識)의 순수한 알맹이를 나타내는 말로 이른바 불성(佛性)을 말하는 것이다. 식에 망상의 습기가 붙지 않은 순수한 알짜가 식정(識精)이다. 망상은 식(識)에 붙은 껍데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식정이 반연의 대상이 되는 산하대지 등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보(正報)인 중생 쪽에서는 불성(佛性)이라 하고 의보(依報)인 우주 만유 쪽에서는 법성(法性)이라 한다. 이는 마음의 진여(眞如)를 성품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중생의 본래 마음이 진여이다. 진(眞)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고 여(如)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사가 거듭되는 중생의 갈래를 취(趣)라 하는데 육도(六道)를 달리 육취(六趣)라고도 한다. 업을 지어 그 과보로 태어나는 곳이다. 불교는 수행의 목적을 생사해탈(生死解脫)이라 하여 윤회를 멈추고 끝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성불하여 보리와 열반을 증득하면 윤회를 벗어나는데 이때 식정의 청정한 본체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것이 본래의 청정한 자리를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일 뿐 본래 없던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중생이 미혹되어 있기는 해도 본래는 누구나 청정한 불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그 불성(佛性)을 놓고 말할 때는 부처와 똑같아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만 본래의 불성을 모르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다. 이 장(章)의 대의는 수행에 있어서 먼저 두 가지 근본을 바로 알고 수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육근원통법 가르쳐주는 보현보살



##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⑧ 자비관

원행지를 하면서 암마라식이 돈독해지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본제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밝은성품을 운용하니 본성과 각성 밝은성품이 서로를 여의지 않는다.

본제와 본연을 함께 주시하면서도 다가오는 경계를 져버리지 않는다. 돈독한 쌍차쌍조로서 삼신구족행이 임의롭게 이루어지니 이 과정을 부동지라 한다.

부동지에 들면 암마라식이 완성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9식으로 이루어진 눈·귀·코·입·몸·생각이 갖춰진다. 처음 초지보살이 되었을 때 갖추고 있던 해탈지견은 각성이 주체가 되었던 진여식이다.

암마라식은 각성이 주체가 된 의식이 아니다. 암마라식은 불공여래장이 만들어낸 진여식이다. 열아홉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보살이 생멸문을 제도해서 불공여래장을 이루게 되면 불공여래장은 진여식을 이루는 6근이 된다.

불공여래장으로 이루어진 6근을 갖추게 된 8지 보살은 그 때부터 육근원통을 배우게 된다. 육근원통은 육근을 10식으로 전환시켜가는 방법이다. 9식의 암마라식을 10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다. 육근원통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은 8지 보살을 대상으로 육근원통법을 설하시는 보살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현보살행법경〉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육근원통을 통해서 원통식이 갖춰지면 이때가 바로 선혜지를 증득한 때이다. 스무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육근원통을 이룬 9지 보살은 천안통과 천이통, 숙명통과 타심통으로써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때 중생제도를 더 크고 넓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밝은성품으로 생멸문 전체를 덮어버린다.

보살의 밝은성품이 생멸문 전체를 덮게 되면 생멸문의 모든 중생들이 밝음을 얻게 된다. 각성이 깨어나서 스스로를 보게 되고 번뇌가 쉬어져서 지복감을 느끼게 된다. 다툼이 사라지고 경쟁심도 없어진다. 보살이 이런 성취를 이루게 되면 법운지에 들었다 한다. 법운지를 성취한 보살을 10지 보살이라 한다. 스물한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법운지에 머물러서 제도된 생멸문은 불공여래장이 된다. 이때가 바로 대자비문이 성취된 때이다.

본제관을 통해 성취한 대적정심과 대자비문이 한자리를 이루면 이때가 바로 무량의삼매가 증득된 때이다.

대적정이 바탕이 된 공여래장과 대자비가 바탕이 된 불공여래장을 하나로 합쳐서 불이문을 이루면 이때가 바로 등각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이 불이문을 이룰 때에도 자비관이 행해진다.

대적정의 적멸상과 불공여래장의 원통식이 합쳐질 때 무심처를 바탕으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이 이때의 자비관이다. 무심처가 중심이 돼서 적멸상과 원통식을 함께 껴안으면 이 상태가 불이문이다. 무심처를 바탕으로 적멸상과 원통식이 서로를 여의지 않은 상태가 등각도의 상태이다. 스물한 번째 자비관이 행해진 것이다.

등각보살이 묘각도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자비관이 쓰여진다. 이때의 자비관을 憶佛法(억불법)이라 한다. 억불이란 부처님을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묘각을 이루는 두 번째 과정이 억불이다.

억불이 스물두 번째 자비관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⑧ 무상하기 때문에 사물

# 사물은 머무르지 못해

사물이 눈에 비치게 되면 사물은 크게는 유(有)의 존재성, 무(無)의 존재성 그리고 유무가 아닌 비존재성의 존재성,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으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유무가 아닌 비존재성의 존재성만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감각기관은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눈으로 보는 유의 유, 의식으로 보는 무의 유만을 사물의 모습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엄청난 착각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논리에 어리둥절하기만 할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개체의 의지에 의해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무수한 데이터에 의해 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사실을 사람들에게 장맛비처럼 퍼부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 그렇다고 소통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일에 대한 판단을 멈추는 데 있다. 이것이 멈추어져야 의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유무가 아닌 비존재성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을 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물의 본 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번민하는 일들을 계속 쌓아 가게 된다.

모든 사물은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사물을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려는 그 마음을 바르게 보는 일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잡아 두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인해 번민이 생기는 것이지, 번민을 일으키는 대상과 사물은 실재에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그대로의 상태를 공(空)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오온의 일으킴에 반응(번민)함이 없는 것이 무생이며, 그리고 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찾음이 없어진 것이 자성을 떠나는 것이 된다.

“소위 공공(空空)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자성(妄想自性)의 법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이라 말하는 것 역시 공이라는 의미네. 망상자성(妄想自性)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공(空), 무생(無生), 무이(無二), 이자성상(離自性相) 등의 법상을 말하는 것이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설명되더라도 여기에 진공(眞空)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논리를 마무리하고야 만다. 이것이 서로가 알아야 하는 진리이고 사실이 되어야 한다. 행여나 여기에서 진공(眞空)에 대해 서로의 주고받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토끼뿔을 보았다고 서로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대혜대사의 문답은 그것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만들고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하여 서로 주고받는 언어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양에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리고 모양의 진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효율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고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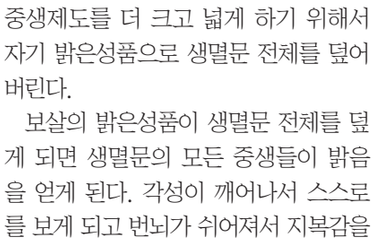
우리의 의식에 남아있는 전식은 올바른 정보가 저장되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올바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일체법에서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물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직 없는 것과 같다. 사물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였다면, 우리는 사물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질 수도 없고, 사물에 대한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다는 앎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물에 무상의 이름이 붙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 | |
|---|---|---|
| 가루자죽염 | 125g | 45,000원 |
| 가루자죽염 | 230g | 82,000원 |
| 알갱이자죽염 | 125g | 50,000원 |
| 알갱이자죽염 | 230g | 90,000원 |
|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 20g | 9,000원 |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20,000원 |
| | 250g | 10,000원 |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본사 견본으로 ...

소리비교 순간! 너무나 달라진 스님 염불소리에 혼란스러운 보살들이 법당으로 몰려오며 스님 염불소리다! 아니다! 테프 소리다! 확인하는 소동! .... 이때 비교만 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이유 ...
권한다고 다 사준다면 재벌이 따로 없기 때문! .... 비교시 장난감차이 확인!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장기할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